



해외양계뉴스



브라질

닭고기 수출 전반기 48% 큰폭 증가세

지난 전반기 동안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량은 96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8%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냉동 절단 닭고기는 54만9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나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에서 닭고기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 44%에서 3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망을 밝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수출물량이 많은 곳은 사우디아라비아로 13만8천톤이며 그 뒤를 러시아 홍콩,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PI)

표.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 물량 2003년 전반기

지역	2001	2002	2003
사우디아라비아	120.0	104.9	138.6
러시아	28.3	87.7	132.8
홍콩	65.5	44.2	96.6
일본	54.1	65.5	82.4
독일	49.1	40.5	78.3
네덜란드	40.1	33.6	57.2
아랍에미리트	24.8	28.4	42.6
총계	622.1	648.1	958.8

(자료 : Secretariat of Foreign Trade)

에스토니아

케이지 사육 규제로 생산비 상승

인구 140만, 연간 계란 생산량 13억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발트 3국중의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케이지에 대한 사육 제한으로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케이지 제한에 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이는 시장 계란 소매가격에 영향을 주어 전체적인 경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생산업체인 Tellegg사에서 케터제한으로 케이지 사육이 감소하면서 연간 2,300만개의 계란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견하면서 유럽연합의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P)

대 만

저콜레스테롤 계란 개발

대만의 한 대학 연구팀이 4년에 걸쳐 붉은 효모쌀(red-yeast rice)을 이용한 저콜레스테롤 계란을 생산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15%의 콜레스테롤이 적으며, 생산비가 높아 시중 판매가격은 2~3배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 효모쌀(red-yeast rice)은 중국의 전통적인 조리법 및 약초처리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건강에 효험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P)

네덜란드

가금인플루엔자 후유증 벗고, 재출발

네덜란드는 지난해 가금인플루엔자의 피해를 뒤로하고 다시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인플루엔자로 지난해의 계란생산량은 95억5천만개로 2001년보다 3.2%의 감소를 보였고, 가금육은 76만7천톤으로 0.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 농장에 주로 영향을 가져온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해 2001년 1975개의 농장중 256개 산란계 농장이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란계 수도 3,183만수에서 2,870만수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수출량은 줄고 수입량이 큰폭 증가하면서 닭고기의 경우 자급율이 2001년 202%에서 2002년 197%로 낮아졌고, 계란의 경우는 329%에서 31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소비량은 계란의 경우 1년에 184개, 닭고기의 경우 22.4kg으로 나타났다.(WP)

미 국

2004 아틀란타 국제 양계박람회 개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틀란타 국제양계박람회가 오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에 걸쳐 미국 아틀란타 국제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전시분야는 가금산물 생산에 관련된 모든 관련분야로 880여 업체가 참여하며 참관객만해도 전세계에서 10만여명이 넘게 다녀간다. 국내에서도 매년 100여명이상이 선진 양계산업을 배우기 위해 박람회에 참관하고 있으며, 미국비자를 얻기가 까다로운 만큼 참관을 원하는 양계관련인들은 서둘러 비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태 국

CP그룹 닭고기 러시아에 수출 큰 기대

태국의 닭고기 수출이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지난 5년 전부터 러시아에 닭고기 수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동안 미국의 횡방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최대 닭고기 회사인 CP그룹이 최근 모스크바 무역상들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선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국쌀 5만톤을 수출키로하는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수출에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P의 한 관계자는 이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동유럽국에도 수출선을 넓혀나갈 것이며, 닭고기 수출물량도 많아질 것을 확신하였다.(PI)